

“올해 가기 전 수장고 엿볼까요” 관람 재미 배가

광주시 남구 양림동 소재 이강하미술관은 기획을 잘 하는 전시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다. 이강하미술관이 을사년 뱀띠해와 병오년 붉은 말의 해 경계에 서 미술관의 속살을 다 보여주는 격에 해당하는 아카이브 전시회와 파빌리온 순회전을 잇따라 진행한다. 이 두 전시 모두 기획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시로 기대된다.

먼저 아카이브 전시회는 ‘2025 LAM 열린 수장고’라는 명칭으로 지난 11월 20일 개막해 오는 2026년 1월 25일까지 열린다.

이강하미술관의 올해 마지막 전시회이자 첫 아카이브전으로 기록되는 이번 전시의 핵심은 그냥 저냥 일반 미술작품들이 선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소장 작품 및 자료들을 이야기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전시장을 ‘예술가의 작업실’ 또는 ‘미술관의 수장고’를 옮겨 둔 것처럼 대표 작품과 자료들을 구성해 관람객을 초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관람객들이 합부로 접근할 수 없어 궁금증 해소가 어려운 수장고에 관한 내용들이어서 관람하는 재미와 결이 남다를 전망이다. ‘수장고라는 곳이 이렇구나’ 라고 깨칠 수 있는 기회로도 손색이 없다.

미술관의 수장고는 일반 관람객들이 출입할 수 없으며, 미술관의 보물창고이자 심장과 같은 핵심 공간으로, 외부에서 내부가 이중벽과 단열, 방화, 항온항습, 가스계 소화설비 기능이 설치된 특수한 공간으로 존재하며 수장고에 보관되는 작품과 자료들은 지역의 정신과 예술의 상징적 문화유산으로 남게지고 있다.

학예연구사는 지역성과 시대적 예술가가 떠난 작업실의 소장 자료와 작품들을 수장고에 보존하고, 시대와 역사, 개인의 서사를 연구·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강하미술관의 소장 자료들을 통해 국립 미술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미술관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특별 기획된 전시회로 이해하면 된다. 이 전시에서는 이강하 작가의 1970년부터 2007년까지 대표 작품과 자료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다양한 소장 자료들을 전시장 안에서 탐구하고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강하미술관, 잇따라 아카이브·파빌리온 순회전

‘열린 수장고’ 내달 25일까지 소장품·자료 등 선포 캐나다 파빌리온전 내년 2월까지 용인 다올갤러리



전시장에 구성된 이강하미술관 수장고의 보관·연구 중인 작품과 한 개인으로 살아온 작가의 삶과 이야기를 이어 아카이브 자료들과 연결해 전시 작품으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술관의 보존관리 기능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기능까지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는 문화적 향유 및 미술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정덕 관장은 “이번 아카이브 전시는 미술관이 이강하 작가가 2008년 작고한 이후부터 미술관 개관 운영까지 15년간 보존·연구 해온 작품과 소장 자료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기획 전시”라며 “소장품은 단순히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 숨 쉬는 유령의 문화자산이다. 앞으로도 지역성과 동시대성을 아우르는 전시를 통해 일상 속 예술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 용인 다올갤러리에서는 이강하미술관이 광주비엔날레 때 선보였던 캐나다 파빌리온 전

시 작품들이 순회전 취지로 선보인다.

이 전시는 이강하미술관의 대표 전시처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천안시립미술관에 이은 이번 다올미술관에서의 순회전은 6일 개막. 2026년 2월 15일까지 ‘집 그리고 또 다른 장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 전시는 캐나다 웨스트바핀코어퍼레이티브와 광주 이강하미술관이 공동 기획하고, 용인 다올갤러리가 협력한 국제교류 프로젝트이자 2025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전시 활성화사업’ 순회전의 하나다.

민족의 다양성과 전통적인 삶,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현대예술의 공통점을 재해석해 담은 결과물로 전시 작품들은 한국 최초 캐나다 북극 킵가이트를 다녀온 이선 기획자, 김철아·이조흠·주세웅 작가의 다양한 장르의 작업들을 선보이며, 이는 킵가이트이누이트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여기다 북극의 환경, 동물, 인간의 삶, 전통문화



이강하 작 ‘국사봉의 아침’



이조흠 작 ‘바람의 용기’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집’이라는 주제를 발견해 전시회를 구현한 것이다.

한편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기념하며 진행됐던 캐나다 파빌리온 전시회가 국내의 관람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캐

나다 토론토 현대미술축제 ‘뉴이블랑쉬’와 오타와 주캐나다한국문화원(KCC)으로 전시를 확정하고, 국가 간의 다양하고 긴밀하게 예술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대중목욕탕 재해석...광주·인천의 ‘예술적 연대’

대중목욕탕을 탐구하는 전시와 도시 간 유사점 및 차이점을 탐색하는 전시가 마련돼 열리고 있다. 없는 시간을 내서 방문하게 되면 아주 특이한 전시들을 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다.

전시공간인 호랑가시나무창작소(대표 정현기)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이어서 건축물을 구성하는 재미와 함께 그곳의 도시 자연풍광이 출중해 늦가을과 초겨울의 정취를 함께 느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시나들이가 아주 유익할 전망이다.

먼저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지난 11월 26일 개막, 12월 9일까지 광주 남구 양림동 소재 아트폴리곤에서 대중목욕탕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통해 인간과 생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는 전시를 갖는다.

‘생태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따뜻한 증가와 젖은 타일의 냄새, 사람들이 오고 가며 남겨 놓은 온기, 물 위에 잔잔히 떠 있는 하루의 흔적들이 목욕탕을 단순한 위생의 장소가 아닌, 관계와 순환의 은유적 공간으로 확장시킨다.

특히 목욕탕에서 누구나 먼저 샤워를 하는, 오래된 예의는 단순한 습관을 넘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이색적 두개 작품 전시 진행

‘생태탕’ 아트폴리곤 ‘다른 듯...’ 전 청년창작소 별관

어 하루의 흔적을 정돈하는 의례로 이어진다. 탕 안에서는 타인의 미세한 움직임조차 물결이 돼 내 몸에 닿고, 그 파동은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된다. 이 경험은 작은 흔들림이 전체에 파장을 만들고, 순환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생태 구조와 닮아 있다.

참여 작가들은 이런 목욕탕의 구조와 의미를 각자의 언어로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참여작가로는 김다혜, 정원, 조은솔, 장윤하(Cindy Jang-Barlow) 등이며, 기획은 김희주씨가 맡았다.

먼저 김다혜 작가는 반복적 움직임과 흔적의 감각을 통해 목욕탕을 하나의 복합적 생태계로 재해석하면서 타의심을 평상과 TV라는 오브제로 재현해 목욕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공간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어 조은솔 작가는 씻어내림을 단순한 청결을 넘어선 정화의 의식으로 바라본다. 조 작가의 작품 ‘미안한 감각 샤워’는 건강한 공유 생태계를 목표, 씻어내림을 행하는 주제와 그로

인해 씻김을 당하는 객체를 연출한다. 장윤하 작가는 동네 목욕탕을 공동체와 돌봄, 조용한 의식성과 연결된 장소로 바라보며, 자연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목욕탕 사이를 오가며 서로 다른 장소의 물이 어떻게 새로움과 해방을 주는지를 탐구한다.

이번 전시는 대중목욕탕을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장소, 나아가 생태적 은유의 공간으로 확장한다. 참여 작가들의 시선은 몸과 공간, 시간의 흔들림을 통해 보이지 않는 관계망을 탐색하며,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다층적 감각으로 드러낸다.

공간개입 프로젝트 첫번째 순서로 이 전시를 기획한 김희주 큐레이터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기분”이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담겨 있는 대중목욕탕의 경험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개인의 작은 행동이 개인과 공동체 더 나아가 생

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의 감각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일 개막, 오는 13일까지 청년창작소 별관 아티움에서 전시 ‘다른 듯 같은’(Different Yet Alike)을 만날 수 있다. 이 전시는 대한민국 근대의 출발점이었던 인천과 근대화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광주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번쯤 둘러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두 도시는 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과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인천은 항구 도시로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근대의 출발을 알렸고, 광주는 민주화와 공동체적 연대의 중심지로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 차이 속에서도 두 도시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중시하는 감각,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미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하며 예술적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

참여 작가는 서영림(서영실), 송은혜, 양나희, 정명숙, 정연지, 정준혁 등으로, 각자의 작업을 통해 지역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탐구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연말 풍성하게 채울 ‘정통 재즈 오케스트라’ 선율

13일 ‘송년음악회’...아트스페이스 흥학관 개관 1주년

북한문화예술공간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오후 6시 ‘재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연다.

지역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정통 재즈오케스트라가 펼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흥학관은 100년전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하던 공간을 재정비해 지난해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과거의 시간을 품고 현재의 예술을 담아내며,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공연 및 강연을 통해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흥학관의 첫 생일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동안 함께해 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다.

공연은 박수용 교수(호남신학대 음악학부)를 중심으로 재즈와 클래식 분야에 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정통 재즈오케스트라가 맡는다.

크리스마스 캐럴의 재해석부터 재즈 스탠더드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무대를 꾸린다. 박밴드 특유의 풍성하고 자유로운 사운드로 멋진 연회장에서 열리는 송년 파티에 초대된 듯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흥학관 관계자는 “흥학관은 과거의 흔적 위에 새로운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어, 1년 동안 많은 시민들의 문화적 섬터가 돼왔다”며 “이번 송년음악회를 통해 올 한 해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필수, 입장료는 1만원. 정혜경 기자 view2018@

‘체험·코딩 기술’ 전국 과학관 성과전 한 자리에

‘5개 국립과학관.zip’ 21일까지 광주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지난 2일개막, 오는 21일까지 5개 국립과학관의 자체 개발 전시품을 한자리에 모은 공동 성과전시회 ‘5개 국립과학관.zip’을 진행한다.

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한 과학관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국립과학관의 특색 있는 전시품을 압축 파일(.zip)을 풀듯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광주과학관이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이 공

동 참여했다. 각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이 담긴 전시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는 5개 과학관을 상징하는 ‘랩’(Lab, 연구실) 공간으로 구성해, 각 과학관에서 자체 개발한 전시품 3~5점씩을 선보인다.

전시품은 운동 잔상, 액체 자석, 각운동량 보존 등 기초과학 체험부터 코딩 기술 기반 콘텐츠까지 다양한 주제로 제작됐고, 해설패널을 통해 전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혜경 기자 view2018@